

건축가들의 견해

한 창진역

Mies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을 창안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월요일 아침이건 아니건간에 각각의 건물마다 하나씩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ruce Goff**

우리의 동료들이 새로운 건축의 심리적 표현과 같은 미개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척하고 있음은 다행이다. 이것은 조각에서 하는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미학은 그 구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하면 감정적 지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은 엄밀한 형식의 관계에서 보다는 해결이 적당하고 바르다고 느끼는 데서 생긴다. 한개의 건축작업에서 이런것이 사실일 경우, 도시 미화와 같은 집합적 건축의 경우에는 더 많을 수 있다 **Vernon De Mars**

형태 발전의 전개는 이전의 경향에 대한 저항으로 연속파처럼 생기는데, 건축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자유에 대한 초기의 선언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개념·고안이 공간에 풍부해질 것이다. 1920년의 전형적인 건축과 오늘의 건축을 비교한다면, 가장 의미있는 발전으로 3차원적 가소성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구조적인 앙상블 폭면 Shell, 들어가고 나온 건물 요소들이 광선, 음영의 전개를 보여주지만 curtain Wall의 표면에서는 이런것을 볼 수 없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현대건축의 일반적인 구실을 해왔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어휘가 늘어나며, 청중들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시대의 이미지가 전개된 활동범위가 된다. 새로운 절충주의에서 방황하거나, 신비주의에 대한 지나친 기능주의를 삼가야 한다 **Gropius**

어떤 지역에서는 오늘의 모습이 혼동된것으로 본다고 걱정한다. 건축은 그 자체로 붙여서 지어진 집합적 성격을 갖는다. 40년전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현대건축과 이미 태어난 현대미술에 대한 강의를 들을때에도 무질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말은 그후 여러번 들었다. 고대 회화의 비평가들이 몸통에서 半身像의 팔을 분리해 내기 시작한 조각가에게 무질서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어디서든지 무질서를 찾아내는 것보다 쉬운것이 없다.... 건축은 모든면에 착수함으로써 진행된다. 해석적·기능적 접근의 결과나 상상과 반항의 결과가 어떻게 간에 개인적인 표현이 건축에 있어서 효력있는 형식과 기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당하게 되기 위하여 건축의 주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더 나은 건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간적, 기술적, 사회적인 실험 경험으로서 개인적인 모험을 환영한다. **Breuer**

1952년 다른 사람처럼 나도 매우 불안했다. Pei와 Saarinen은 Mies 추종자였다. Rudolph가 그의 Florida 작업장에서 자기가 Mies를 추종하는 불쌍한 사람 (he was a poor man's Mies)이라고 그의 느낌을 말한적이 있다. 단 한가지 건축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그러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난처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환이 아니다. 과거 몇백년 동안에도 본적이 없는데 원심력에 의하여 건축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책임있는 건축가들은 같은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건물을 일년에 지을 수 있다....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명할 것이다. **Johnson**

우리의 '건축은 이성적·감명적 자기 만족을 위한것, 한정적이고 완전하고 특수한것과는 거리가 있다. 명확하고 완전한 신 고전주의와는 달리 즉흥적이며 생각을 파과하지 않고 조정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건물을 디자인 해야 한다. **Johansen**

구조는 원리다. 형식은 구조에 의하여 형상을 취하고 기능·종교·문화·기후에 의하여 가능한 성격을 갖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구조는 꼭 철제 또는 콘크리트 골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조적 기본요소는 속까지 질이 같은 물질, 가느다란 부재 힘을 받는 표면 등 세가지다. 건축가는 자기 구조적으로 완전 명쾌한 매우 상이한 형식에 도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오늘 딱딱한 건조물로 보이는 골격, 힘을 받는 표면을 본다. 우리들은 쌍곡포물선형 우산모양이 가장 자리에서 bearing wall로 뿔 수 있는 것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 우리들은 모조된 vault와 거것 접혀진 판을 본다.

우리들은 하중을 받지않는 기둥, 구조물의 장식을 본다. 곡선형태에 대한 망상이 최소한 직접 힘을 받는 구조를 추잡하게 만든다. 구조는 건축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임의의 형태에도 맞추도록 강요된다. 어쨌든 형태는 구조이며, 구조는 곧 건축이다. **Ellwood**

건축은 부인용 모자가 아니다. 유행은 지나가며, 건물은 남아서 덧없는 흥분에 대한
힘상스러운 암시가 된다 **Stone**

개인의 표현자유가 전체환경을 거의 파괴할 수 있다. **Yale** 캠퍼스가 그렇다. **Washington**은 고유한 전체적 연속성 형식을 갖인 여러 사람들이 돌보아온 도시이다. 이러한 환경에는 어떤 감수성이 있을것이다. 건축가는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바로 해내서는 안된다. 환경을 존중하면서 그의 독창성·다양성을 펼 수 있다 **John Carl Warnecke**

혼란이라는 말이 오늘의 건축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다. 혼란, 비평적 무질서, 난잡하고 요란스럽고 불합리한, 엉망진창이다.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경주장에 들어선 것처럼, 조바심이 우리에게 문제다. 연속성에 대한 일치된 거부가 지도적 건축가에게 있다. 과거에서 배운것과 합하지 않고, 현재에 대한 사실적 관계없이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과 관련도 갖지않고 추상적인 디자인으로서 각각의 계획안이 별개의 시도로서 취급된다 **Ellwood**

자에게 대한 혼란이 도시재건과 같은 크고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날 필요하다. 예술가·건축가로서 우리는 디자인하는 모든 건물에 자기 표현을 하려한다. 길, 광장, 도시와 같은 전체에 걸쳐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 M. Pei**

현대 미술에서는 그림이 완성된 때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건축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때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지못한다. 문제가 있는데 접근방법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서 창안해 내려고만 한다. **The Beaux arts** 교육은 아주 심리적인 문제. 또 이것을 풀어내는 규칙을 만들었다. 미학은 인간이 만든 문제이며 그것에 의하여 장치에서 처럼 규칙을 밝혀낼 수 있다 **Joseph Escherick**

과학적 변혁은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간을 당황하게 했으며 구조·기능·理性주의 라는 새로운 신에게 인간이 굴복했다. 궁극의 목적이 인간이 통제하는 통제 결정의 미래가 아닌 한, 과학적 결정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르다. 국가주의의 마지막 섬광, 정치적 대변동, 기술공학적 변동의 시기 이후의 미래를 걱정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통제·수학·과학적인 우주를 인간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이성·과학적지위 그 다음의 것을 찾고 있다. 과학·종교는 객관적인 반면에 심미적 세계는 주관적이다 **Paolo Soleri**

우리는 두가지 성격을 갖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직 그 자체가 환경, 公式 또는 문제 해결책에 대한 우리 견해를 구성시키지 않는다는것. 디자인 및 결정경로가 문제 그 자체로 깊이 관련되어 있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어야 한다는 두가지다. 우리들은 기화된 사고와 수많은 선택방법을 만들되 임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sherick**

우리시대의 복잡성은 건물들을 그 자체로 완성시키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들은 관대한 목적을 갖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자를 지어놓고 건물이라고 부른다. 소유주의 지갑만 보고 맞추어 놓은 상자를 만들고, 이것들을 도시라고 부른수는 없다고 굳게 믿고있다. 한 물건을 다른것과 관련시키고, 한가지 비율에서 또 다른 비율로 변환시키고, 여러가지 방법과 높이로 공간을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한다 **Paul Rudolph**

건축에서 새로운 동경으로 대부분이 주제 및 일상생활을 심미학에 관련시키려한다...美는 결과적이며 문제를 바로 해결한 표시일 뿐이다. 목표로서는 비현실적이다. 심미학에 대한 선입견이 디자이너가 좋아보이는 모양으로 임의의 건물을 디자인하기에 이른다. 심미학의 보편적 조직으로 공식화 될 수 있는 건물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생활방법에 근거를 둔것이어야 한다 **Esherick**

가장 창조적인 건축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낼수 있는 원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원시생활 양식의 환경과 조건, 인간과 인간 이하 아프리카 회람의 원시 선사적 구조에 관심이 있다. 완전 행태보다는 거대한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있다. 예컨대 Parthenon의 완벽보다는 Paestum의 서투른 솜씨를 조사하는데 관심이 있다. 건물의 완성은 건축가가 건물을 죽인것과 다름없다. 나는 생활에 더 관심이 있다 **Johansen**

위대한 건축은 예술이며, 건축에서의 예술성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특색이 있다. 위대한 건축은 주로 기교에 의하며, 건물은 그 자체의 질서, 규율, 여러가지 양상을 명확히 반영한다. 건축은 사고의 표현 넘어에 있다. 건축에서의 진정한 예술은 일시적인 스타일이나 미묘한 상징주의가 아니다. 짚수 있는 것을 짚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초월 능력에 달려있다. 즐거움이나 깊은 감동을 일깨울수 있는 정도. 정신적으로 인간의 의기를 높이고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기교의 마술이 그 존재의 정당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있다 **Craig Ellwood**

건축은 생활방법을 충족시키고 반영하며, 애정·예절·기쁨·침착·미·희망·품위·개성과 같은 인간적 특성을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미와 즐거움을 통하여 사고능력을 높이고, 인간이 열망하는 품위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질서를 통하여, 우리들은오늘의 열광적인 활동에 침착한 배경을 만들고, 인간이 그의 환경에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의 스케일을 맞춰야 한다 **Minoru Yamasaki**

개별적인 건물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전체구조로서 건축을 생각한다. 건축은 전체에 걸쳐 인간이 만든 세계다. 도시·교외·보도·고속도로·건물·공원·간판·가로등·우리가 살고 있는 집·앉아있는 의자에 이르기까지 주위에 있는 모든것이 생활에서 물리적 도움을 준다 **Hugh Stubbins**

짓고 있는 건물의 디자인에는 주요한 개념·상세한 개념이 들어있다. 상식·경험·취미 그리고 작업이 이것들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상식·경험·취미·작업은 아주 기초적 개념없이 좋아지지 않는다 **Marcel Breuer**

건물을 설계하려고 앉았을 때, 한가지 개념을 쌓아올리기 위한 합리적 과정을 밟을 수 없다. 생각이 나타났다가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Philip Johnson**

건축은 그 구실을 남에게 의존하며 완전히 엔지니어가 조직하고 양식화한 철재, 콘크리트 뼈대를 덮을 피상적인 외피, 산업적으로 가용한 요소를 도입하고 결합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술적업은 고용되어서 일이 정해졌을때 활동한다. 고객은 어느 모퉁이에 건물을 지으려하며, 목적·소요비용, 건축법규, 노동규약에 대한 요구사항, 친척의 장비를 사용할것 따위의 조건을 제시한다. 건축가들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런 조건아래에서 할수 있는 일이란 기둥사이에 벽돌판을 얼마나 아름답게 배열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건축의 이러한 면은 저물어 가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것 사회가 할수 있는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가능한 환경규제, 인간욕구, 세계의 자원, 산업의 능력을 알아 보아야 한다 **R. Buckminster Fuller**

도시상황에 맞는 건물 디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까지 통일된 건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다수의 일시적 차용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아파트 건물, 사무실 건물의 전면이 임의대로 변화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에 적응할 필요와 도시생활에서 요구되는 사항의 복잡성이 융통성을 요구한다. 관절로 나누어진 디자인은 융통성이 없으며 온당치 않다 **Pei**

나의 건물은 매우 조각적이며, 형식론자의 위치에서 시작했으며, 여기에 거슬러는일을 해왔고, 이제는 기능에 알맞는 건물을 만든다고 말하는 그릇된 사람을 본다. 이와 정반대다..... 건축은 구조, 기능조건의 시적표현이다 이것은 scale에 상관없이 계획과 구분된다 **John M. Johansen**

건축은 그것을 매하는 가운데 솟아나는 활기다 **Lonis I. Kahn**

건축은 순수한 예술인 동시에 매우 엄밀한 사회·물리과학이다. 전체환경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용도·안정·쾌락을 위하여 서로 관계를 짓도록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Ralph Rapson**

건축교육에서 접근방법에 대한 교육이 기술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전문화 될수록 지식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 **Walter Gropius**

건축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대의 방법론은 지역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상세한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분리된 요소 또는 관련된 전체로서, 재료·색깔·형태·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하여 이제 구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과거의 문명이 결코 생각해 내지 못한 종합결과를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추상적인 해석에 의한 기원을 연상시키는 힘이다. 아직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의 문명이 그것에 맞먹는 건축적 質을 일반적으로 결하고 있다. 건축을 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Herbert Greene**

Wright는 과학이 종교를 몰락시킨 것처럼 건축을 몰락시키고 있으며, 건축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있다고 믿었다. 우리가 기계를 조작할 줄 알고 과학을 하나의 영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왜 과학이 기계보다 우리를 몰락시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Guff**

대부분의 인간활동은 계획적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계획은 상황에 맞는 좋은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 그렇듯이 계획은 실제로 전체지역에 대한 집합적 해결책을 안출해 내고 약간의 문제만을 해결한 몇가지 평면의 집합이다. 이런 해결책을 경험할때, 그것들은 건축가와 계획가의 유명한 디자인과는 아주 다른 일종의 시각적 구성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자매예술·회화·음악·문학이 오늘날 사물을 결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결과다. 여기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없다 **De Mars**

건물에 대한 생각은 역사의 축척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고전건축을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대로 형식을 갖고 있다. 역사적 기념물을 연상시키는 위엄을 기대한다. 역사적 건물에 대한 지식은, 건축가가 일시적 흥분쪽 보다는 주류에 남도록 하는 힘이 될 것이다. **Stone**

언제든지 순수기하학에 의한 형식, 특히 **nonplanar** 계열의 질서·연속성·구조 성질에 매혹되어 있다. 이 四面형식은 우수한 구조적성질이 있으며 기하적성질이 구조를 단순하게 한다. 두가지 탁월한 것이 건축에 필요하다 **Catalano**

밤에 도시상공을 비행한다면, 격자모양은 볼 수 없고 무의미한 도시美的 조망도 보이지 않는다. 주요 교통망의 강 지류가 고요하고 검은 이웃동네에 원을 그고 있는 윤곽이 광선으로 부각되어 있다. 유럽의 시장구획과 대광장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것은 쉽다. 필요한 것은 간선도로 실제적인 도시관문, 도심지, 개인적인 이웃 공동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건축적 개념이다. **Edward L. Barnes**

복합사회에서 기술공학 및 경제구조의 성질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건축가들은 이런 것을 돌보지 않으며,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한가지 일만 하려고 한다. 이것은 건축가를 만족하는 역할이 아니다 **Kevin Roche**

누구든지 특성이 있다. 도시는 이런 특성을 용해시킨다. 자기 기본적인 통속성을 표현한다. 누구든지 라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배운다. 인간관계의 느낌은 지식, 건강, 예술, 과학, 정부, 예배와 같은 사회적 욕구를 일으킨다. 도시는 단체가 모여있는 장소다. 그들은 자기 개인, 건축, 한 도시의 특수한 성격 결합, 건물내외 연결기구의 환경에 표현된다 **Kahn**